

기업윤리 브리프스

4호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기업윤리”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 전문가 칼럼

공유가치 창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문휘창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요즘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관심과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올바른 시각 없이 기업의 책임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떨어뜨릴 수 있다. 사회적 활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착한 나눔’이고 둘째는 ‘가치 창출’이다. 자선 사업이나 비영리 단체 등은 자기 자산을 남에게 베푸는 착한 나눔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윤 추구가 기본 목적인 기업은 단순한 착한 나눔보다는 가치 창출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이 분야 최고의 경영학자인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 교수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포터 교수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기업 경영의 결과인 이익을 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보다 기업 경영의 가치 창출 과정에서 관련된 사회 부문과 상호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기업과 사회 모두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이다.

CSV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CSR과 CSV의 차이점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과거에는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제로섬(zero-sum)으로 보았기 때문에 기업이 돈을 벌었다면, 이는 사회를 기반으로 얻은 것이기에 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사회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따라서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은 책임의 일부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터 교수는 이러한 CSR 개념이 CSV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한쪽이 희생하는 제로섬 개념의 CSR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게임으로 인식하고 기업이 올바른 전략을 수행해야 기업과 사회 모두가 발전하고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기업이 수익성을 높이면서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해 경제적·사회적 가치의 총량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기존의 비즈니스 영역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영역까지 공동가치 창출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자본주의의 지평을 넓혀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우리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사람들은 기업이 ‘조건 없는 나눔’으로 ‘착한 기업’이 되기를 원할지 모르나 기업의 본질은 ‘가치 창출’을 통한 ‘지속 성장’이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며,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다. 물론 법을 지키고 윤리경영을 하는 것은 기본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반기업 정서’를 만들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 창출’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기업과 사회가 협력하여 함께 발전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주: 이 글은 필자의 「GOOD TO SMART」 책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음



공유가치 창출(CSV)의 성과 측정 방법론

순위 시스템

순위 시스템은 주로 여러 종목이나 기업, 사업을 비교하기 위해 활용된다. 이는 일반적인 기업 신용평가에서 활용하는 방식처럼 기업들의 사회적 성과 수준이나 공유가치의 상대적인 크기를 투자자나 평가자에게 전달한다. 대표적인 순위 시스템 사례는 사회적 활동 인증기관인 B랩(B-Lab)이 일반적 인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B Corporation'이라는 브랜드 인증을 들 수 있다. 산업과 규모에 따라 60~170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평가 설문에 기업 관계자가 응답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지역사회, 환경, 소비자, 임직원이라는 5개의 영역에서 5점 척도로 점수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일정 기준을 넘어서 기업에는 'B Corporation'이라는 이름의 브랜드를 인증하고 각종 법률 및 회계, 정보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평가 시스템

순위 시스템과 비교해 평가 시스템은 성과의 절대적 수치를 산출하는 데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통화, 숫자, 기간 같은 정량적이고 절대적 수치들로부터 성과 분석 결과를 산출하는 게 평가 시스템의 목표다. 전 세계 각지의 기업들과 재단, 공공기관들이 각자의 논리와 방식을 적용해 활용하는 사회적 투자 수익률(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 원리가 대표적인 예다. SROI는 투자를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성과를 절대적 수치로 분석해 비율로 표현한 값이다. 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은 경영자나 투자자, 이해관계자들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리 시스템

관리 시스템은 경영 활동이나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활동의 성과들을 지표화해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함으로써 경영상의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록펠러 재단과 어큐먼펀드, B-Lab이 주도하고 딜로이트와 PwC같은 대형 회계 법인들이 기술을 지원해 개발하는 IRIS(Impact Reporting & Investment Standards)가 대표적인 임팩트 회계 기준이다.

공유가치 창출(CSV)로의 진화

CSR에서 CSV로의 진화

CSV(Creating Shared Value)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서 한 단계 진화한 개념으로 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 발상의 전환을 통해 사회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의 CSR이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었다면, CSV는 기업이 수익은 물론 사회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방법

기업은 산업별, 기업별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가치 창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유가치를 전략에 반영하고 내재화하여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모호한 개념이 아닌 실제 기업의 제품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방식에 직접적으로 전략이 녹아 있어야 한다.

제품 및 시장의 재구성

제품을 재설계하고 제품에 대한 전문성을 혁신적으로 이용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유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가치사슬 재정의

구매조달 프로세스, 물류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동시에 환경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클러스터 구축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계 개선을 통해서도 공유가치를 창출 할 수 있음

공유가치 창출(CSV)을 통한 기대 효과

일자리 창출

구조적 공백이 존재하고 있는 시장을 공략함으로써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 혁신을 통한 소셜벤처 창업이 확대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동반성장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공유가치 창출은 시장 경쟁원리를 통한 정책을 가능하게 하므로 현재 중소기업의 보호에 편향됨으로써 유발되는 기업 이윤동기 훼손, 주주의 재산권 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거래 위축 등의 정책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

지역사회 발전기여

공유가치 창출을 통해 기업과 관련된 협력업체의 지원과 기반시설을 효율화하기 위해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함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공유가치 창출은 경제와 사회가 함께 발전하고 이익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빈기업 정서를 완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

공유가치 창출(CSV)을 위해서는..

CSV는 CEO가 의지를 가지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자원을 활용하는 작업이 수반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과정이므로 CEO의 혁신과 리스크 감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모든 사업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작업이므로 기업의 가치 창출 과정에 있어 CSV에 대한 전사적인 인식 및 개념의 공유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CSV는 사업 단위는 물론 모든 중간관리자들이 투입되어야 하고 변화정도를 측정하는 일이 필요하며, 기존의 CSR 프레임워크에서는 관리자들과의 성과를 측정하고 보상할 때 사회·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 및 성과 체계의 설계가 필요하다.

기업의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청렴정책 민간기업 전수과정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요 청렴정책을 민간기업에 전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기	규 모	장 소	교육대상 선정
4월 3일	15명	포스코 센터	시범운영(15개 기업)
6월, 10월, 11월	각 20명	미 정	참여 희망기업 중 선착순 접수(위원회 홈페이지) - 과정운영에 관한 자세한 일정은 실시 1개월 전 기업윤리 브리프스 등을 통해 별도 안내

※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은 기업으로 전수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업은 위원회에 별도 문의바람

교육방식 : 1일 과정, 제도소개와 토론방식으로 운영

프로그램 : ①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② 청렴도 진단모델 및 분석기법 ③ 신고자 보호제도 ④ 우수 제도개선 사례소개

산업별로 보는 윤리.. 건설업

:: 건설업계의 주요 윤리 이슈와 이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노력

클린 턴키를 위한 노력

최근 건설업계의 턴키공사 설계심의 과정에서 비리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와 발주기관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턴키 평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턴키 비리 근절을 위한 '턴키 설계심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직접적인 금품 수수 등 비리행위와 심의위원 개별 접촉 등 일체의 비리행위에 감점을 부여하고, 감점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일정 기간 동안 턴키 설계심의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내 건설업계는 '클린 턴키'를 표방하고 비리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0년 중반부터 '글로벌 계약제도 준수'에 따른 '클린 턴키'를 도입하여 이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우건설 역시 '클린 턴키' 움직임을 가세하고 있다.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

건설업계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동반성장 정책이 본래도에 진입하고 있다. 대형건설사뿐 아니라 중소건설사도 협력사와의 소통을 중심으로 상생문화 구축과 애로사항 해결,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전략을 펼치고 있다. 건설업계는 과거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신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협력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하도급대금 100% 현금 지급 및 지급기일을 최대 10일로 단축하여 협력사 자금운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현대건설은 동반성장 지원센터를 통해 협력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우수협력사의 해외현장 견학 등 해외진출 장려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우건설 역시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등 공정거래위원회 4대 가이드라인 운용을 통한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 기업의 동반성장 활동도 눈에 띄고 있다. 이화공영은 협력사 부모 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체 등에 대한 자금지원 및 하도급 대금지급기일 단축 등을 통한 동반성장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원광건설은 협력사와 공동으로 지역 사회 공헌활동을 추진하면서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노력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는 건설업계 역시 확대되고 있다. 2008년 건설업계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삼성물산은 최근 세 번째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히 사회의 공유이익을 창출하는 CSV 개념을 전면으로 도입하였다. 현대건설은 2010년 처음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영국 기업책임 데이터분석기관인 CR(Corporate Register)가 주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에서 3위를 차지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CRRA(CR Reporting Awards)를 수상했다. GS건설과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건설사들이 지속가능경영 행보에 나서면서 성실시공과 친환경건설,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등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동향

:: 국내 윤리경영 동향

재계 “경조금·접대 받지 않는다” 윤리경영 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기업의 자정 노력이 확산되는 가운데,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재계가 앞 다퉈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음. 삼성그룹, LG그룹, 포스코 등은 협력회사를 비롯한 업무 관계자들에게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경조 규정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현대기아차는 윤리현장을 만들어 부정한 이익을 제공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GS칼텍스는 임직원들의 명함에 비리 제보 연락처를 기재하고 있으며, 매년 윤리경영 인식도를 조사함.

상장사들 사회책임경영 역량...소비자는 '봉'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710개사를 대상으로 작년 사회책임경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점은 100점 만점 중 31.60점으로 나타났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점수는 20점대에 그쳤고, 대기업은 40점대로 그나마 양호했으나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책임 촉진, 직장 내 기본권 분야에서 특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음.

가톨릭대, 조찬포럼 '드러커 열린대학' 개설

가톨릭대가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자기계발과 윤리경영을 돕기 위한 일반인 대상 과정의 조찬포럼 '드러커 열린대학'을 개설하였음.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열리는 '드러커 열린대학'은 사회 각계 명사들이 연사로 나와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포럼은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아침에 진행될 예정임.

제9회 투명경영대상 시상식 열려

2013년 2월 20일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9회 투명경영대상' 시상식이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되었으며, 대상은 두산중공업, 우수상은 광명전기와 포스코TMC가 공동수상하였음. 투명경영대상은 경총 등 경제5단체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경영제도투명성, 노사안정성, 사회공헌성 등을 겸비한 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음.

한국 로레알그룹 '2013 세계 최고 윤리기업' 선정

로레알그룹이 세계적인 기업윤리연구소 에티스피어 재단이 공개한 '2013 세계 최고 윤리기업'에 선정되었음. 에티스피어 재단은 기업의 윤리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세계 최고 윤리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음.

:: 해외 윤리경영 동향

美서 악명 높은 기업 1위는 AIG

미국 금융전문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여론조사기관 해리스인터랙티브의 기업평판지수(RG) 조사를 분석한 결과 AIG가 1위를 차지해 최악의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위는 골드만삭스, 3위는 할리버튼, 4위는 아메리칸에어가 각각 선정되었음.

유엔, 모든 회원국 참여하는 '환경총회' 설립 승인

유엔 총회가 케냐 나이로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권한 강화와 지위 격상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환경총회' 설립을 승인하였음. 이번 조치로 집행이사국 장관들만 참석해 온 연례 UNEP 집행이사회 회의는 유엔 전 회원국 장관들이 참가하는 '유엔 환경총회'로 격상됨.

지속가능 보고서 세계 회의 개최

2013년 5월 22일에서 24일에 걸쳐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GRI 지속가능 보고서 세계 회의에서 마스터 클래스가 개최될 예정임. 마스터 클래스는 교육과 워크숍 그리고 네트워킹 타임을 포함하여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GRI 포컬 포인트(Focal Point) 런칭

2013년 2월 26일 GRI는 요하네스버그 증권 거래소에서 남아프리카 포컬 포인트(Focal Point South Africa)활동을 시작하였음. GRI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표준 관행으로 만들고자 남아프리카를 포함해 더 넓은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과 단체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기업 보고서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GRI와 IIRC의 협동

GRI와 IIRC(국제 통합 보고회의)는 기업 보고서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두 단체의 협동에 관한 동의를 발표하고, 이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IIRC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 통합 보고서의 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해오고 있으며, GRI의 '지속가능 보고서 가이드라인'과 같은 기존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현장을 찾아서...



신한금융그룹 회장 한동우

:: 신한금융그룹

공유가치 창출 분야의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신한금융그룹의 한동우 회장을 모시고 신한금융그룹의 공유가치 창출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한금융그룹의 '따뜻한 금융'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신한이 추구하는 '따뜻한 금융'은 금융의 본업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사명을 바탕으로 고객과 사회의 가치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따뜻한 금융'은 기업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본업 그 자체가 사회적 가치와 더욱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하는 일상적인 업무 하나하나를 좀 더 고객과 사회에 이로운 방향으로 바뀌보자는 것입니다.

2. 신한금융그룹의 '따뜻한 금융' 추진배경과 철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982년 신한금융그룹의 모태인 신한은행을 설립하면서 만들었던 행훈이 "새롭게, 알차게, 따뜻하게"였습니다. 2년 전 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이 행훈을 다시 되새겨보았는데 창립으로부터 지금까지 신한 30년을 돌아보니, '새롭게'와 '알차게'는 잘 해왔던 것 같은데 '따뜻하게'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본업인 금융을 통해 고객들과 따뜻한 유대감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성장은 물론, 생존을 담보 받을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며, 따뜻한 금융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3.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유가치 창출이란 무엇이며,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이나 비전은 무엇입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는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업도 시대정신에 맞게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성장과 수익에 최적화된 경영시스템과 기업문화를 보다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바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포터 교수의 CSV 전략은 본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따뜻한 금융과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였습니다. 저는 CSV가 앞으로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그룹의 가치체계를 새롭게 보완했습니다. 따뜻한 금융의 의미를 그룹 가치경영체계의 일부로 포함시킨 것인데 '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미션을 정립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따뜻한 금융'을 단순한 구호가 아닌 영업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원칙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4. 신한금융그룹이 '따뜻한 금융'을 추진하는데 있어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요?

지금까지 따뜻한 금융을 추진해 오면서 나름대로 성과와 가능성을 발견한 부분도 있었지만, 짧은 시간 내에 조직의 근본적인 부분까지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KPI(Key Performance Index, 핵심성과지표)에 의해 평가를 받는 영업점은 아무래도 실적이라는 숫자에 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이런 직원들에게는 따뜻한 금융이 다소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사회적인 신뢰와 고객의 마음을 KPI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금융회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입니다. 건전한 성장과 수익을 달성하기 위한 과학적인 KPI 시스템과 사회적 신뢰와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한 득심(得心)경영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나간다면, 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신한금융그룹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는 기업윤리 브리프스 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타(利他)'의 철학을 가진 회사의 직원들은 그만큼 열심히, 보람 있게,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타'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경영자는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고객, 거래처, 주주, 지역사회의 이익을 함께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넓은 시야로 사업을 내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뜻한 금융은 오늘날의 시대정신이며,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게 하는 동인이자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차별적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금융'이 새로운 경영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화두를 함께 고민하는 기업인으로서 경험과 생각을 나눈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 지난호에 이어서

미국 법무부(DOJ)와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발간한 FCPA 안내서(A Resource Guide to the FCPA)에서는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외국 공무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FCPA상 외국 공무원의 범위

FCPA에서 말하는 외국 공무원의 범위에는 실제 공무원 외에도 국영기업체 직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업계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관하여 안내서는 (i)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지분 규모, (ii)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통제 정도, (iii) 해당 기관과 그 직원에 대한 외국 정부의 평가 및 (iv) 해당 기업과 그 직원이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최근에 실제 판례에서 제시된 기준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판단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으므로 한국 기업들로서는 거래 상대방이 FCPA상 외국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 공무원에 대하여 국내법과의 비교

FCPA와 우리나라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은 외국공무원의 범위 및 규정 형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FCPA는 정당, 정당 간부, 정당 후보자에 대한 뇌물 제공 행위도 금지

하고 있으나, 국내법의 '외국공무원 등'의 범위에 이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FCPA의 경우 공적 업무 수행을 대행하는 대행기구(instrumentality)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는 반면, 국내법은 제2조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국내법은 '외국공무원 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국영기업체 임직원의 범위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하였거나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명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이에 포함되지만, 차별적 보조금이나 그 밖의 특혜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사경제 주체와 동등한 경쟁관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FCPA의 경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instrumentality"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 더구나 FCPA 관련 판례조차 많지 않은 상황이라 실무상으로는 외국공무원의 범위를 둘러싼 해석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최근에 나온 몇몇 하급심 판결이나, 미국 법무부와 SEC가 공동 발간한 FCPA 안내서에 의하면, 외국정부의 해당 업체에 대한 지분비율, 주요 이사 임면권 등과 같은 외국정부의 해당 업체에 대한 지배력 정도, 외국 법령상 인정되는 해당 업체 특유의 의무나 특권의 내용, 차별적 보조금이나 기타 세제상의 특혜 여부 등과 같은 여러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향후 FCPA뿐만 아니라 국내법상으로도 외국 공무원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인식과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다음호에 계속됨.

Q&A 이럴 땐 이렇게...

1 직무수행 상 부당한 소개 행위 금지

Q 모 공직유관단체 A차장은 평소 거래를 해오던 물품납품업체의 부탁을 받고 동료공무원인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소개의 대가로 금전이나 향응을 수수하지 않았고 실제 계약이 성사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소개의 대가로 뇌물이나 재물을 수수하지 않아도 행동강령에 위반되며, 소개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지라도 위반입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금지

Q 모 공직유관단체 임원 B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예산 지원 사업의 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과반수 이상의 심사위원들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 특정업체의 출품작을 거론하였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공직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출품한 작품을 거론한 행위는 공정한 심사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공직자 행동강령 상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입니다.

주 : 공직자 행동강령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4월

» 국내외 행사를 소개합니다!

국 내

지역별 CSR-PPP 포럼

지역별 CSR-PPP 포럼이 아시아, 아프리카에 진출했거나 사업진출을 고려중인 기업들에게 CSR과 PPP에 대한 기업 사례 소개 및 인식 제고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됨.

- 주최 : 한국국제협력단
- 일시 : 2013년 4월 2일(화)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국 외

Who Cares Wins: CSR Event

덴마크의 가장 중요한 CSR 행사 중 하나인 Who Cares Wins: CSR Event가 CSR의 시작과 끝, 효과적인 CSR 플랫폼, 사회적 책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테마로 개최될 예정임.

- 주최 : Who Cares Wins
- 일시 : 2013년 4월 16일(화)
- 장소 : 덴마크 코펜하겐 (Hotel Crowne Plaza Copenhagen Towers)

ASEAN Corporate Sustainability Summit

ASEAN Corporate Sustainability Summit이 Shifting Gears, Mainstreaming Sustainability(방향전환, 지속경영의 주류화)라는 테마로 개최될 예정임.

- 주최 : ECCI Group
- 일시 : 2013년 4월 4일(목)~4월 5일(금)
- 장소 : 마닐라

윤리경영 퀴즈

공유가치 창출에 있어 기업은 산업별, 기업별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가치 창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음 중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 1) 제품 및 시장의 재구성
- 2) 가치사슬 재정의
- 3)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 4) 클러스터 구축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1만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 정답 제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브리프 담당자 문옥인(oim2821@korea.kr)

※ 정답과 함께 성함, 연락처, 주소(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를 적어 보내주시십시오.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김선진님, 김지혜님, 김현우님, 김유진님, 육근혜님입니다.

※ 상품은 보내주신 주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Yes 준비!
 Ok 윤리!

자그마한 관심



자신의 직무에 따르는 성과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윤리경영입니다. 자료제공 : 교보생명 (그림 안중만)

새로운 책 소개



1. SMAT를 위한 지속가능경영 이해와 활용

저 자 :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출 판 : 매일경제신문사(매경출판주식회사)
출판일 : 2013년 3월 25일
정 가 : 35,000원



2. 100년 기업의 힘 타타에게 배워라

저 자 : 전병길, 김은택
출 판 : 생각비행
출판일 : 2013년 3월 15일
정 가 : 15,000원

- 본 월간지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